

농민단체 사단법인 전국애농회는 어떤 단체인가

오카노 마사요시

일본 사단법인 전국애농회 사무국장

1. 애농회 역사

가. 조직의 설립으로부터 애농학원 설립까지

사단법인 전국애농회는 와카야마현 청년사범학교를 퇴관한 코타니 준이찌씨가 1945년에 와카야마현의 자택에서 연 애농학원을 모체로 하여, 1946년에는 애농회라고 개칭하여, 기관지의 발행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1952년에는 사단법인화를 계획하여, 1954년에는 미에현 아오야마초에 애농근본도장(후에 장기근본도장이라고 개칭했음)을 개설하여, 전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모아 2년간에 걸친 장기연수과정 즉 1년째는 전원 기숙사 교육을, 2년째는 농가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5년에는 애농회본부 사무국을 와카야마현에서 미에현 아오야마초에 옮겨 현재에 이르렀다.

마오야마초에 이전한 후 장기연수 뿐만 아니라, 단기 연수에 대한 요망에도 응하기 위해 같은 해에 제1회 애농단기대학 강좌를 개강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이들 장기·단기의 연수강좌를 애농학원이라고 개칭하여 장기과정에 관해서는 고등부로서 각종학교령에 의거한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4년 지난 1963년에는 학교법인 설치인가를 받아 애농학원 농업고등학교가 발족되어 다음 해 1964년에 개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시작한 소규모 농업학원이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규모의 대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코타니씨의 인망과 열의는 물론이지만 사람만들기, 친구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그의 농업교육 이념에 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관행농법으로부터 유기농법으로의 전환

애농회는 당초 농약도 화학비료도 사용하는 소위 관행농법을 추진했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제초제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 논에서 햇빛 아래 허리를 굽혀 장시간 일해야 하는 김매기라는 큰 부담에서 특히 부인들을 해방시켜준

다는 차원에서 환영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농법이 정착되려던 참에, 1962년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에 의한 침묵의 봄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3년 전에 농약의 위험성을 주장한 나라현에 사는 의사 고야나세씨한테서 경고를 받은 결과, 농약이나 화학합성자재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한 코타니씨는 1971년에 이르러 드디어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후 애농회회원 농민의 생산 현장 및 애농 교육현장에서 유기농업이 차차 확산하게 되었다.

다. 한국 정농회와의 관계

원경선씨가 토치기현에 있는 아시아학원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귀국준비를 할 때 어디선가 애농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애농회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애농회하고 한국의 농민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975년 9월에 코타니씨는 원경선씨의 초대를 받아 10일만에 걸쳐 한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과 동시에 농약·화학비료에 의존한 한국농업에 대해 일본이 저지른 똑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76년 1월에 한국의 정농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농민간의 친교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의 기술면에서의 교류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96년 정농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이후 매년 교류연수회가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애농회가 설립한 애농학원 농업고등학교와 풀무고등농업기술학교와의 자매교로서의 교류도 있다.

2. 애농회의 추진사업

가. 귀농준비학교(애농대학강좌)가 담당하는 농업후계자 양성

1992년부터 일본에서는 학업을 마쳐 곧바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현실에 매슬게 위기감을 느낀 농수산성은 농업을 담당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업종으로부터 농업분야로 사람을 참여시키는 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취농준비학교(就農準備學校)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애농회도 위탁을 받아 이러한 형태의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애농회는 설립 당시로부터 농민교육을 중심적인 사업으로 행해왔고 1970년대 중엽으로부터 이미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을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일을 해왔다. 그 경험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취농준비학교(就農準備學校)라는 형태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유기농업 및 환경보전형 농업운동, 기술의 보급, 유기농산물의 유통

애농회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던 당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농민은 미친놈이

라는 식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농작물이 인간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기에 그 것이 위험한 것이어서 되겠는가 라는 굳은 의지로 일관해왔다. 당초는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학습 기회를 많이 가졌으나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완전한 기술이라는 것은 없다. 기후나 지역적인 여러 조건에 좌우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각 생산자마다의 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연구 실천성과를 이웃에게 나누는 형태로 바뀌어 왔다.

유기농산물은 원래 시장에서의 유통에 쉽게 맞는 것이 아니었다. 시장유통에서 요구되는 것은 규격과 품질인데, 더구나 그 품질은 그 농산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오는 것이 아닌 외형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얼굴과 직접 보이는 관계 속에서 생산물을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서 보낼 수 있는 직거래가 각지에서 생산자가 핵심이 되는 가운데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다.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사업

구미에서는 1970년대에 유기농산물의 기준조성과 검사·인증이 농업자가 자주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었지만, 일본에서는 유기농업이 운동이라고 해서 추진되어 온 경위도 있어 농산물을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탓인지 이러한 움직임에 불이 붙는 것이 늦어졌다. 애농회에서는 1990년경부터 유기농산물의 기준과 인증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4년에 애농회로서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해서 검사·인증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제도로서는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에 검사·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때 애농회도 국가의 인증기관으로서 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검사·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친환경적인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사업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는 일반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심이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안심이란 어디에,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농회에서는 인증사업과 동시에 정보공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정보공개사업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배려하려고 하고 있는 농업가·가공업자·자재제조업자·유통업자·서비스업자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